언약의 여정

빌립보서 3:1-14

김요셉 목사님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류광수 목사님과 최경웅 목사님과 정윤돈 목사님은 오세아니아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보시는 안 된다. 하나는 시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란다. 사도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이다. 옛날에는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 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온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니까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내가 죽어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고자 한다고 고백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꽃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다. 언약의 여정이다.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한 장으로 짧게 표현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 언약의 여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 왜 쉬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다. 종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기어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쉽게 하셨다. 왜인가? 한 가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한 가지만 주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가지를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회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한 가지를 주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한 가지를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한 가지를 주셨다. 용어는 다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다시 한 번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이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쉬운 것이다. 언약의 여정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 유일한 권세는 마가복음 3장 13-15절이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이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밟고 이겨서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언약이 아니겠는가.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다. 아무리 귀를 많이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만 흑암세력이 무너진다.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열심, 도덕, 명예,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권세가 있다.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전도자가 된다. 이 모든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언약의 여정은 쉬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쉬운가, 어려운가? 쉽다. 종교생활은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문제로부터 출(出)이다.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출(出)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구원 받을 줄 믿길 축원한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쉽다. 우리 집에 천로역정 게임이 있다. 하울이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천로역정 게임이 펼쳐져 있다. 천로역정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천국 가는 것이다. 그 가는 과정이 합정도 있고, 교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 좌절,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람을 통해서 낙심할 이유, 환경을 통해서 낙심할 이유 전혀 없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데 힘들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이 오직 예수로 행복한다. 그리스도 가졌으니 행복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다. 내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부러웠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부러웠다. 그러나 복음을 고등학생 때 알고 난 이후로, 많은 환경가면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느껴졌다. 굶어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한다.

1.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노력, 열심, 특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다 종교이다.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Covenant를 주신다. 그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주신다. Vision이다. 그 사람에게 유일성을 주신다. Dream이다.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것이다. Image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 그것이 Practice이다.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다.

(1)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언약의 여정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예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데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불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실 줄 믿기를 바란다. 시편 48편 14절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속지 말라.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 한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한다.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문제를 사할 수 없다. '인내해서 살아야지.' 아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도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기를 바란다. 지금도 함께 하고 인도하실 줄을 믿는다.

(2)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보고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45장 5절이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그리고서는 그 후에 다시 요셉을 만났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4장 12절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모세는 입이 썩어 못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제 가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해도 전도할 수 있다. 생명운동 일어난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착각이 있었다.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 일단 우리 반 반장에, 대학에서는 교수님에게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 나보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냥 기도 했다. 로마서 1장 16-17절의 말씀이 나에게 나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식인, 경제인들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무슨 믿음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때부터는 누구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어떤 가게 사장님이 가게를 오픈해서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복음 전했다. 당연한 것이다. 사무엘상 3장 12절이다. '내가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다. 블레셋 장군이 쳐들어왔다.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갔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되었는가.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 돌 던지기 전에 고백했다.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이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한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이다.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합의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갔다. 옷을 던졌다. 그런데 엘리사는 따라갔다. 무슨 말인가. 원래는 가서 사정해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구원자이다. 그 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다.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고백을 했다.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갔다.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열심, 특심, 지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기를 바란다.

2. 언약의 여정은 우리의 능력으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1) 스가랴 4장 6절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 드렸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힘인가. 하나님의 힘, 권능이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Dynamis), 지금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한다. 다이너마이트는 건물을 부수거나 굴을 뚫을 때 사용한다. 아무리 작은 것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고 권능이고 한다.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다.

(2) 우리는 왜 지꾸 속는가. 우리는 환경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속지 말아야 한다. 램넛 7명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어떻게 네가 우리들보다 더 높이 가겠는가.' 다 무시했다. 호렘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 스스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 왕궁의 배경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또한 도망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셨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다윗에게 끌리앗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을 찾는데 다윗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다. 다윗이 작은 사람이어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주형 램넛만한 것이다. 갑옷을 입히려려고 하니 너무 큰 것이다. 내가 입는 옷을 주형이한테 입히려려고 하면 아마 무릎을 다 덮을 것이다.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적들도, 아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누가 가능하다고 말했는가. 다윗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했다. '저 인간이 폄박하고 교회를 무너트린 사람이 아닌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 언약의 여정은 우리의 배경, 힘, 배경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그렇다. 무당들이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전도사라고 말하거나 자신도 신앙생활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재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자기 자녀가 죽음병에 걸려서 신내림을 받고 있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6장 20절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여러분들, 이 힘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램넛들이 이 자리에 있다. 언약제도 괜찮다. 그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의 처지가 낙심할 처지에 있는가.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의 힘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노력, 열심, 철학, 명에,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쉬운 것이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이것부터 해라.' 하면 절대 안 한다. 놀기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에 갔다. 누가 제일 잘 놀았을까. (웃음) 나만 잘 놀고 제일 은혜 많이 받으면 된다. 우리가 간 곳이 '빠지'라고 한다. 물이 빠지는 곳이라고 해서 '빠지'라고 한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빠지게 했다. '빠지'니까.(웃음) 나도 빠지고 램넛들도 다 빠졌다. 나중에는 램넛가 '목사님, 오지 마세요.' 한다.(웃음)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때도 내가 제일 열심히 놀았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폐교로 갔는데 그 곳 관리자가 나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목사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왔었던 목사님들은 뒷짐 지고 잘 하니, 못 하니 보고만 있었으나, 나를 보고 램넛보다 더 심하게 노는 목사를 처음 봤다고 한다. 왜 그런가. 언약의 여정은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회까지 너무 힘들던 걸 필요 없다.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번에 램넛 한 명이 왔는데 어머무시하다. 먹으면서도 배고프다고 한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간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고기만 끊어려 간다고 한다. 그래서 고기는 안 먹냐고 하니 라면이랑 같이 먹는다고 한다. 라면 먹다가 또 사라졌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갔다. 조금 있다가는 수박 통을 잘라서 먹고 있다.(웃음) 언약의 여정은 쉽다. 여러분은 쉬운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면 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램넛들도 전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3.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어려운 길을 걷고 있어도 작품이다. 기쁨이 왔어도 작품이다. 나에게서 어렸을 때 힘든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작품이 되었다. 그 시절이 없었으면 나는 복음을 몰랐을 것이다. 그 시절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몰랐을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램넛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작품,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이번에 류목사님이 WRC에서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다. 1일 3차.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작품을 남겨라.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 남겨야 한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은 모두 '어떤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루에 세 가지 작품을 남겨라.

(1) 무슨 작품을 남겨야겠는가. 말씀 운동의 작품을 남겨야 한다. 말씀을 가진 자만 말씀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 요셉은 복음의 작품을 남겼다. 항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복음의 작품을 남겼다. 모세는 광야생활에서 어떤 작품을 남겼는가? 성막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성막운동 작품을 남겼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의 작품을 남겼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운동을 했다. 거기에서 온 백성과 함께 기도운동을 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다. 다윗은 성전의 작품을 남겼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고백했다. '나는 백향목 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캐는 휘가 가운데에 있었다.' 그래서 언약제를 가지고 왔다. 그 성전운동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다. 엘리서는 도단성 운동을 했다. 말씀운동이다. 이사야는 램넛 운동을 했다. 무슨 말인가. 복음 가진 자들의 운동이다. 바울은 모든 현장 가운데에 교회를 남기는 운동을 했다. 말씀운동의 작품을 남겨야 한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이다. 말씀이 예방한 것이다. 무엇으로 출애굽, 노예 해방 받았는가. 말씀으로 해방 받았다. 우리도 말씀 운동을 남겨야겠다.

(2) 우리가 남겨야 할 작품은 램넛이다. 우리 교회는 램넛 운동하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램넛가 누구냐는 것이다. 램넛트가 누구인가. 어린 램넛트들이 아니다. 램넛트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린 램넛트들도 있다. 어린 분들은 어린 램넛트들에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야기하신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고백되어야 한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나는 후대 살릴 주역이야. 나는 왕 앞에 설 자야.' 이렇게 고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가서 어린 램넛트들에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나는 세계 살릴 주역이야. 너는 왕 앞에 설 자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기도나 하지 뭐.' 한다. 그것은 언약을 잘못 붙잡은 것이다. 램넛트는 나이다. 내가 세계복음화 할 주역이다. 내가 램넛트 운동할 사람이다. 내가 왕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류목사님이 30년 전에 세계복음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응답을 받고 계시지 않겠는가. 류목사님이 지금 10대인가? 전혀 아니다. 우리는 램넛트 운동을 남겨야겠다. 램넛트 운동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다. '남은 자라는 뜻인데, 남아서 전도 운동할 자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램넛트가 램넛트에게 복음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산업인들이 산업현장에서 산업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램넛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가정에서 어린 램넛트들은 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램넛트 운동이다. 우리 교회에서 램넛트가 램넛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램넛트 운동이 사라진다면 이 교회는 얼마 못 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 교회가 51년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램넛트 운동으로 100년, 1000년 달려가야 한다. 모든 램넛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도 운동해야 한다. 모든 램넛트들이 산업현장에서 전도 운동해야 한다. 장로님들을 만나면 참 기쁘다. 장로님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안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바로 김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전도 운동, 램넛트 운동, 미션훈 운동에 대한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2절, 18장 4절, 19장 8절 모두 회당이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다. 램넛트를 찾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 운동이 지금도 지속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운동을 하는 램넛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지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램넛트들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명, 복음 듣고 전부 램넛트 현장으로 들어갔다. 기다린 것이 아니다.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재앙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아무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한다. 램넛트, 어린 램넛트들은 밥을 먹어도 세계복음화, 잠을 자도 세계복음화, 눈만 떠도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세계복음화가 각인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이 램넛트 운동을 우리가 남겨야겠다.

(3) 세 번째는 교회운동이다. 교회는 사회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기적적인 치유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복지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유럽,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교회당이 없어서 식당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젠 그런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한다. 내가 바로 교회이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 모든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겠다.

결론이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언약의 여정은 천천히도,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다. 리듬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사람은 문제 있을 때만 교회에 온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서 바쁘다. 직장에서 포인트를 놓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램넛트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다.

1. 첫 번째 리듬이다.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한다. 이번에 WRC에 갔는데 3대가 와서 사진 찍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그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리듬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흐름 속에 있는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 잡은 램넛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경제를, 지식을, 지혜를,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힘을 얻고 다른 곳에서 힘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 참사랑 가족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한다.

2.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일심, 전심, 지속 좋다. 그런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성기대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찬양한다. 지휘에 따라서 시작했다가 목소리를 높였다가 낮게 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다.

3. 이것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기 바란다. 아주 티 안 나는 실천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화요일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해도 5시간이다. 168시간 중에 5시간은 티도 안 난다. 100분 중에 5분은 티도 안 난다. 24시간 중에 하루 10분 기도수절하는 것은 아주 티 안 난다. 이런 실천을 하시기를 바란다. 현장 가서 후박 결박하는 것도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 누구 얼굴에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현장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주소서. 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런 작은 실천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스캐를 짜라. 그리고서는 남들 모르게 내 가방에 전도지 몇 장 넣는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주 작은 실천이지 않겠는가. 참사랑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모든 참사랑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언약을 전달할 자가 맞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자이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를 다 넣어 놓으셨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참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맞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 되게 하여 주소서. 여기 있는 모든 참사랑가족들을 통해서 램넛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